

第5編：郷土文化

忠孝烈의 國家的 獎勵와

新安郡의 孝烈行者의 考察

□ 朝鮮時代의 國家的 獎勵

옛부터 우리 民族은 忠孝思想을 精神的 基調로 삼고 살아왔다.

家族 相互間인 父子, 兄弟, 夫婦에게는 慈·孝·悌·烈의 家族倫理가 絶對的으로 履行되어야 하고 孝子와 烈女는 國家의 表彰을 통하여 더욱 重視하였다.

孝道와 貞烈은 最高의 道德的 指標로 되어 있어서 孝子·烈女에 對하여서는 國家的으로 크게 讚揚하고 格外히 惠賜가 되었다.

經國大典에는 「孝子節義者·孝子·節婦」는 「爲國亡身者子孫·陸族救患之類」와 함께 每歲初에 禮曹가 錄啓하여 織物의 賞賜 또는 旌門의 建立, 復戶를 定하여 實施하였다고 記錄하고 있다.

五倫行實圖나 忠孝騰錄에 記錄된 孝子의 例들은 이러한 事項들이다.

이와같이 孝行을 獎勵하는 事實로는 官吏에 對하여는 父母에 喪이나 祭祀에 賜暇를 하였음은 물론 犯罪者라도 父母가 老病일 때에는 處刑을 猶豫하여 侍奉케하고 流配者도 歸覲이나 歸葬을 許諾하였을 뿐만아니라 老親奉養을 위하여는 軍役義業을 免役하기도 하였다.

아와같이 忠孝에 對한 國家의 關心에 따라 國民들은 孝를 家族 倫理의 絶對的 指標로 삼아 왔으며 履行 못한 不孝罪 등은 綱常罪로 適用하여 嚴한 法制的 制裁를 加하였다.

즉 嫡子와 庶子를 嚴히 區分하고 再婚女 子孫도 禁錮法에 따라 仕籍에 오르지 못하게 하고 財產相續도 法的으로 規制하였으며 婚禮의 경우에도 同姓不婚, 近親禁婚하고 結婚年令도 男子 15歲, 女子 14歲로 規定되었다.

특히 異姓再從間의 異姓婚의 限界는 成宗 2年(1471年)에 同姓 同貫은 물론 同姓 異貫의 禁婚은 顯宗 10年(1669年) 正月에 宋時烈의 建言에 따라 法制化 하였다.

喪禮의 경우 喪服 問題를 重要視하여 尊卑, 親 등에 따라 五服制를 취하였고 墳墓, 碑石도 身分에 따라 制限되었으며 祭禮에 있어서도 佛敎式이 점차 排除되고 儒敎式 家廟制의 勵行과 4代祖 奉祀 및 始祖와 先祖의 時享, 享祀 등으로 바뀌어 가면서 宗族의 단결에 크게 寄與하였다.

또한 家族內의 女姓의 地位는 男系中心에 밀려 매우 낮아서 男尊女卑, 女必從夫, 三從之道 등이 強要되었고 貞節을 매우 重히 여겼다.

따라서 社會活動이나 法律活動은 極히 制限을 받아 再嫁는 原則的으로 禁止되었으며 만약 再嫁

할 경우 그 所生은 科擧應試資格이 剝奪되는 등 賤待를 받았다.

그러나 士大夫 兒女子들은 王室敎養書籍인 內訓·女四書·小學 등이 婦道길 위한다는 名分으로 讀書가 許容되었다.

□ 新安郡의 孝·烈·行者의 考察

이와같이 國家的으로 忠·孝·烈이 制度化됨에 따라 이 地域은 家族主義가 通念化 되었다.

즉 家門의 繼承과 血錄意識, 父母에 對한 孝道, 夫婦의 意識, 兄弟의 序烈意識 등이다.

특히 新安郡의 地域的인 與件으로 生業과 交通手段이 船舶을 利用하기 때문에 이로 因하여 男便을 잃거나, 子息을 잃은 悲嘆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슬기와 智慧를 모아 家門과 血緣을 重視하여 節操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많았으며 또한 父母病患을 위하여 殺身하여온 孝子나 孝婦들이 많이 있었던 地域이다.

이처럼 高貴한 精神遺産은 바로 우리의 歷史속에서 面面히 이어서 오는동안 家門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愛郷心으로 더 나아가서는 愛國心으로 昇華되어 民族의 自主的 力量으로 繼承發展해 온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物質文明의 發達과 함께 우리의 貴重한 美風良俗이 허물러져 가고 있는 傾向이 있어 우리 祖上들이 지켜왔던 忠·孝·烈의 傳統思想을 再照明하여 이를 根本으로 삼아 이 時代의 倫理規範으로 삼고자하여 文獻을 中心으로 本郡의 孝·烈·行者의 行蹟을 記錄으로 남기고자 한다.

〈編輯者 註〉

名 稱	烈 女 碑	建立年代	1907 年
位 置	新安郡 都草面 午耳島里	建立主體	門 中
管理 主體	상 원 金 氏 門 中	〈直近緣故者〉金 漢 忠	
類型 및 構造	碑 閣 : 石 造 (130 cm × 60 cm)		
建立 沿革	密陽 朴氏의 烈行을 紀念하기 위하여 상원 金氏 家門에서 建立		
<p>〈孝烈行事項〉</p> <p>密陽 朴春植의 딸로 出生(1833年)하여 17歲되던 해에 午耳島에 사는 상원 金氏에게 結婚하기로 하고 結婚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男便이 될 金氏가 뜻밖에도 世上을 떠나자 할 수 없이 金氏의 魂靈과 結婚式을 올리고 시집 生活을 始作하였다.</p> <p>男便이 없는 시가이지만 老시부모를 극진히 섬겼고 노환에도 조석으로 奉養하였으나 끝내 世上을 떠났다.</p> <p>朴氏는 끝내 再婚하지 않고 얼굴도 모르는 男便만 생각하며 74歲 때 (1907年) 한많은 世上을 등졌다.</p>			

名 稱	孝 子 金 喜 重 之 閭	建立年代	1753 年
位 置	新安郡 長山面 彭津里	建立主體	國 家
管理 主體	金 海 金 氏 門 中	〈直近緣故者〉金 七 碩	
類型 및 構造	碑 閣 : 木 造 瓦 家 (430 cm × 360 cm)		
建立 沿革	1753年 朝鮮 英祖 때 조정에서 現판을 내려 海南郡 門內面 右水營 金海金氏 先山 밑에 碑閣을 建立하였으나 1935年 金海金氏 門中에 의하여 現 位置로 移築하였음.		
<p>〈孝烈行事項〉</p> <p>孝子 金喜重은 新安郡 長山面에서 父親과 딸을 데리고 海南郡 右水營所在 本家를 向하여 木船을 利用 航海中 突風으로 沈沒 危機에 처하자 父親을 求하고자 8歲의 딸을 龍王에게 祭物로 바쳤다. 그러나 파도가 더욱 거세져 父親의 安寧을 船員들에게 附託 후 祭物로 自請, 風浪속에 投身하였다. 父親 또한 아들과 孫女의 죽음을 쫓아 바다에 몸을 던졌는데 當日밤 우수영 수사의 꿈에 우수영 내동 바닷가에 한 사람이 빈사직전에 있으니 구해보라 했다.</p> <p>꿈에서 깨어난 수사가 꿈이 이상하여 내동바닷가에 가본즉 과연 金喜重의 아버지가 바닷가에서 허우적 대고 있어 구출하였다.</p> <p>우수영 수사가 이 내용을 조정에 알려 조정에서 現판을 내렸다.</p>			

名 稱	孝子 金 擎 河 之 閣	建立年代	1880 年
位 置	新安郡 安佐面 邑洞里	建立主體	門 中
管理 主體	金 海 金 氏 門 中	〈直近緣故者〉金 珍 吉	
類型 및 構造	旌 閣 : 木 造 瓦 家 (300 cm × 400 cm)		
建立 沿革	靑松 金擎河의 孝心을 가상히 여겨 이를 後世에 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880年 金海 金氏 門中에서 建立		
<p>〈孝烈行事項〉</p> <p>靑松 金擎河는 지금부터 約 120餘年前에 安佐面 邑洞里에서 김종구의 長男으로 태어나 母親이 눈이 멀어지자 自己 허벅다리 살을 도려내어 藥으로 써서 어머니의 눈을 뜨게 하였다.</p> <p>金·河의 孝誠을 가상히 여긴 全羅 觀察使가 朝奉大夫童蒙敎官이란 직함까지 내렸다 한다.</p>			

名 稱	孝子 晋 州 姜 公 遺 墟 碑	建立年代	1892 年
位 置	新安郡 押海面 鶴橋里	建立主體	國 家
管理 主體	晋 州 姜 氏 門 中	〈直近緣故者〉姜 弘 才	
類型 및 構造	碑 閣 : 木 造 瓦 家 (180 cm × 180 cm)		
建立 沿革	孝子 姜處彬의 孝誠을 기리기 위하여 禮曹에서 1892 年에 命하여 建立		
<p>〈孝烈行事項〉</p> <p>姜處彬은 新安郡 押海面 鶴橋里에서 出生, 家庭이 貧困하여 6 歲의 어린 나이로 老病弱한 父母를 구걸하여 奉養하였다.</p> <p>成長하면서는 품팔이를 하며 奉養, 病이 심하면 손가락을 차례로 깨물어 피를 입에 넣어 回生시켰다.</p> <p>嚴冬雪寒에는 넓적다리 종아리 살을 차례로 베어 아버지에게는 고기라 속여 끓여 드리고 姜公은 수십번 즐도 하였다.</p> <p>父母 別世後 3 年間 墓所 附近에서 生活하면서 生前의 不孝에 대한 용서를 빌었다.</p> <p>그 後 姜公은 不具者가 되어 餘生을 보냈다.</p>			